

삼선녀어장 이틀간 2천7백여만원 어획고

지난달 26~27일 대진·초도 어민에 개방... 나잠어업인 43명 입어 흥합·성게 잡아

북방어장, 저도어장과 함께 동해 최북단 3대 황금어장으로 손꼽히는 삼선녀어장이 지난달 26일부터 27일 2일간 개방돼 고성 지역 어민들이 이틀간 2천760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첫째날인 26일에는 대진·초도리 어촌계 소속 운반선 3척과 고성군수협 지도선 1척, 나잠 어업인(해녀) 43명이 입어해 흥합 2700kg(kg당 3천원), 성게 30kg(kg당 3만원)을 어획했다. 둘째날인 27일에는 운반선 4척과 나잠 어업인 46명이 입어해 흥합 5800kg, 성게 40kg을 어획해 이틀간 총 2천760여만원의 어획고를 올렸다.

삼선녀 어장은 지난 1998년

이후 1년에 한번씩 대진 및 초도 지역 어민들에게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어장으로, 저도어장에서 북쪽으로 480m,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500m구역내에 위치해 있다.

어장내 3개의 바위(일명 유전 바위)가 있어 이름이 붙여진 어장으로, 사람들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아 흥합, 성게, 전복 등의 해산물도 풍부해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속초해경은 삼선녀어장 개방 기간 중 어획물 운반선에 대한 안전관리와 조업 통제 등 긴급 상황을 대비해 경비함정을 전진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최광호 기자

북방어장 4일 개장

내년 3월까지... 속초해경 경비함정 전진 배치

10월 4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동해북방어장이 개장된 가운데, 속초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을 비롯해 해군1함대사령부 소속 경비함정과 강원도 환동해출장소 소속 어업지도선 등 10척이 어선 피랍방지 등 안전조업을 위해 전진 배치됐다.

동해북방어장은 저진 동방 5해리부터 연안 35해리까지 해역과 어로한계선 위쪽 2해리까지로,

저도어장보다 위쪽에 있으며 북방한계선(NNL)과는 불과 2해리에 위치해 있어 조업중 월선 예방과 피랍예방 등 출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경계강화가 각별히 요구되는 해역이다.

동해북방어장은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조업 시간은 새벽 4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다. 최광호 기자

“축산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축산강소농 한우분야 맞춤형컨설팅 실시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7일 7개 시군 한우경영체 50여명을 대상으로 한우분야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27일 7개 시·군(고성, 동해, 태백, 속초, 삼척, 양양) 한우경영체 50여명을 대상으로 한우분야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축산분야 강소농 육성 전국 58개 권역 순회에 따라 실시된 이날 컨설팅에서는 한우농가에 대한 사전기술수요를 파악해 축산경영, 한우개량, 한우번식, 사양관리, 축산환경, 초지사료, 가축질병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국립축산과학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

된 전문컨설턴트는 강소농 선정 농가에 대한 공동컨설팅과 개별농가에 대한 표준경영진단표를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1:1 맞춤형 기술컨설팅과 경영컨설팅을 병행 실시해 참석한 농가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대한 전문기술과 농장경영 컨설팅을 실시하는 강소농 육성사업은 축산물 가격 급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희망과 용기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현대모비스(012330)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현 구간에서 다양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일 것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기업적인 분석을 통한 우량주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어 보이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가 중요한 시점이다. 종목을 소개해야 하는 자리이지만 시장의 흐름에 따른 종목선정이 중요한 시점으로서 종목에 다가가는 방법을 달리 해보려고 한다.

시장은 1700선을 이탈하고

52주 신저가를 다시 갱신한 상태다. 강력한 모멘텀이 아니면 매물의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 구간에서 지수의 추가하락은 메이저들의 손질을 불러오며 속도가 가속화되기 쉬운 구조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메이저는 현 구간을 사수하기 위해 배수진을 칠 것이다. 그러한 모습은 결국 종목들의 움직임에서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들이 내세우는 업종은 자동차이다.

시장의 급락과정에서 추세를

유지하는 유일한 업종으로서 환율 및 업황에서 다양한 재료를 내 놓으며 주가의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넘어선 현대차 그룹이 가지는 지수에 대한 영향력은 과거와는 다른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 최근 흐름에서도 삼성

전자와 현대차 그룹을 상승시키며 지수의 급격한 하락을 방어하는 흐름이 지속 나타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1700선을 다시 이탈한 지금 우선적으로 지수의 상승이 필요한 시점으로서 일봉 캔들이 양봉을 형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이 추세를 이탈한 상태다. 이들 업종이 상승하며 시장의 반전을 이끌기는 어려운 여건이기에 자동차 업종이 나서야 한다. 자동차 업종의 방향성이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자동차 업종의 하락은 시장의 추가하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른 업종에서는 투매를 유

발할 것이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의 상승은 시장의 하락에 제동을 걸고 상승전환의 발판을 이끌 수 있다. 그렇다면 매매를 자동차 업종으로 하는 것이 리스크관리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모비스를 매수해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전자점을 손절선으로 설정하면 쉬울 것이다. 이렇게 대응하면 기준도 명확하고 손절도 짧기 때문에 부담 없이 매수해 볼 수 있다. 매수의 기준은 5일선 아래에서 매수 후 돌파를 확인하는 관점으로 대응할 것을 권한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